

일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이정화 · 류혜겸¹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 ¹마산대학교 치위생과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i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Jung-Hwa Lee · Hae-Gyum Ryu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s, Dong-Eui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College

***Corresponding Author: Jung-Hwa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s,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no, Busan jin-gu, Busan 614-714, Korea, Tel : +82-51-890-4239, Fax : +82-51-890-2623, E-mail : yamako93@deu.ac.kr
Received: 30 September 2014; Revised: 28 November 2014; Accepted: 26 January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i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39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Busan and Ulsan from May 7 to 31, 2013.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se of oral health devices, dental clinic visit within a year, purpose of dental clinic visit, subjective oral health condition, place and contents of oral health education, future contents of oral health education, purpose of tooth brushing, recognition of sealant, recognition of dental caries prevention effect of fluoride, and method and frequency of tooth brushing. Data were analyzed by Predictive Analysis Software(PASW) Statistics 19.0®(SPSS Inc., Chicago IL, USA).

Results: Of the 239 teachers, 187 teachers had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and 52 did not. Those who had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reported higher scores in tooth brushing than those who did not. 59.4%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in dental clinics.

Conclusions: Oral health behavior was different from the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teachers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s influencing on the right tooth brushing habit in the students. So the teachers must take the continuing and systematic oral health education.

Key Words: elementary school teacher,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behavior

색인: 구강건강행태, 구강보건교육, 초등학교교사

서론

교육은 교과목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는 당사자인 교사의 언어, 행동, 태도, 습관 등의 모두가 아동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교사는 아동들의 생활태도 및 습관형성에 본보기가 되므로 아동의 구강건강유지 증진을 위해서는 교사에게 올바른 구강보건지식과 태도에 대한 지도와 책임감을 부여하고 구강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

초등학교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

로 평생구강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아동들은 스스로 구강환경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치아우식으로 인한 동통 및 저작 장애를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영구치 배열에도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³⁾. 그러므로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구강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학업위주의 교육을 중시한 나머지 건강증진에 관한 보건교육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생활습관이나 행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교사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지와 구강관리태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교사들의 건강은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 요소이며,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⁴⁻⁶⁾.

그러나 최 등⁷⁾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과치료 빈도가 높아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문 등⁸⁾과 송 등⁹⁾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건강의 본보기가 되는 교사들 대부분이 구강보건지식이나 구강보건교육경험이 낮은 편이라고 보고하여 아동의 건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대부분이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⁷⁻⁹⁾.

학교구강보건교육은 치과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교사나, 보건교사가 공동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므로 보건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이 올바른 구강보건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⁹⁾,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구강보건교육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평가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구강보건교육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진해시와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구강보건 인식에 관한 조사^{7, 10)}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이상을 보내는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행동이나, 습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습관형성과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구강건강태도와 구강보건교육 필요성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태도를 파악하고 구강보건교육 관련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교사들의 구강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북구에 소재한 4개교,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2개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241부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총 239명(80.0%)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2013년 5월 7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존 선행연구¹¹⁻¹³⁾의 설문문항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구강건강행태에 관한 문항으로 구강관리용품 사용, 최근 1년간 치과방문경험유무, 치과방문 목적,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 관련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교육 받은 장소와 내용, 향후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싶은 내용, 우식예방효과 인지 문항으로 칫솔질목적,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우식예방효과 인지 여부, 칫솔질방법과 일일 칫솔질 횟수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엑셀에 입력한 후, 통계프로그램 PASW Statistics 19.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관련특성에 대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고, 우식예방 인지 및 행태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자의 구강보건교육 장소와 내용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성적

1.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서 전체 연구대상자 239명 중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78.2%(187명), 비경험군 21.8%(52명)로 나타났고, 성별에서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은 남성에서 68.3%(41명), 여성에서 81.5%(146명)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 비경험군은 남성에서 31.7%(19명), 여성에서 18.5%(33명)로 나타났고($p=0.027$). 연령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은 41-50세에서 41.2%(77명), 31-40세에서 31.0%(58명), 50세이상에서 18.2%(34명), 20-30세에서 9.6%(1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경험군은 31-40세에서 55.8%(29명), 20-30세에서 21.2%(11명), 51세이상에서 13.5%(7명), 41-50세에서 9.6%(5명) 순으로 나타났고($p<0.001$). 결혼 여부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은 기혼 84.5%(158명), 미혼 15.5%(29명)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achers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Unit : N(%)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p-value *
	Yes(n=187)	No(n=52)	
Gender			
Male	41(68.3)	19(31.7)	0.027
Female	146(81.5)	33(18.5)	
Age(years)			
20-30	18(9.6)	11(21.2)	<0.001
31-40	58(31.0)	29(55.8)	
41-50	77(41.2)	5(9.6)	
≥ 51	34(18.2)	7(13.5)	
Marital status			
Married	158(84.5)	37(71.2)	0.026
Single	29(15.5)	15(28.8)	
Residence			
Metropolitan city	106(57.0)	28(53.8)	0.633
City	60(32.3)	20(38.5)	
Rural area	20(10.8)	4(7.7)	
Duration of employment(years)			
0-9	53(28.3)	30(57.7)	<0.001
10-19	63(33.7)	15(28.8)	
20-29	55(29.4)	3(5.8)	
≥ 30	16(8.6)	4(7.7)	

*by chi-square test

나타났고, 구강보건교육 비경험군은 기혼 71.2%(37명), 미혼 28.8%(15명)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재직기간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10-19년에서 33.7%(63명)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 비경험군은 9년 이하에서 57.7%(3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Table 1>.

2.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행태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중 일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3.42회, 비경험군 3.27회로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비경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구강관리용품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60.4%(113명), 비경험군 32.7%(17명)로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비경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최근 1년간 치과를 방문한 대상자 중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은 73.3%(137명), 비경험군은 71.2%(37명)로 나타났다. 치과 방문목적에 조사한 결과, 우식치료를 위한 방문이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43.9%(82명), 비경험군 63.5%(3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강검진과 스켈링을 받기 위한 방문이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24.1%(45명)로 나타났으며, 비경험군에서는 스켈링 17.3%(9명), 구강검진 13.5%(7명)으로 나타났다. 주관

적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39.0%(73명), 비경험군 34.6%(18명)으로 나타났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61.0%(114명), 비경험군 65.4%(34명)로 나타났다<Table 2>.

3.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관련특성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시간이 되면 받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50.0%(93명), 비경험군 53.8%(28명)로 나타났고, 향후 구강보건교육을 꼭 받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경험군 33.9%(63명), 비경험군 32.7%(17명)로 나타났다($p=0.869$). 향후 받고 싶은 구강보건교육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구강질환 예방법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55.6%(104명), 비경험군에서 51.0%(2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칫솔질 교습법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15.5%(29명), 비경험군에서 25.5%(13명),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28.9% (54명), 비경험군에서 23.5%(12명)으로 나타났다($p=0.308$) <Table 3>.

Table 2. Oral health awareness according to prior oral health education

Unit : N(%)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p-value*
	Yes(n=187)	No(n=52)	
Daily frequency of tooth brushing	3.42±0.77	3.27±0.91	0.240 [†]
Auxiliary measures for oral hygiene			
Yes	113(60.4)	17(32.7)	<0.001
No	74(39.6)	35(67.3)	
Dental visit(within a year)			
Yes	137(73.3)	37(71.2)	0.762
No	50(26.7)	15(28.8)	
Visiting purpose of dental clinic			
Caries treatment	82(43.9)	33(63.5)	0.116
Oral exam	45(24.1)	7(13.5)	
Scaling	45(24.1)	9(17.3)	
Prosthesis treatment	5(2.7)	2(3.8)	
Orthodontic treatment	8(4.3)	.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Healthy	73(39.0)	18(34.6)	0.561
Unhealthy	114(61.0)	34(65.4)	

*by chi-square test

[†]by t-test

Table 3. Oral health educational characteristic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Unit : N(%)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p-value*
	Yes(n=187)	No(n=52)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oral health education			
Certainly	63(33.9)	17(32.7)	0.869
After confirming time	93(50.0)	28(53.8)	
After confirming content	28(15.1)	6(11.5)	
Don't know	2(1.1)	1(1.9)	
Contents of oral health education(if any)			
Tooth brushing method	29(15.5)	13(25.5)	0.308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method	54(28.9)	12(23.5)	
Oral health preventive	104(55.6)	26(51.0)	

*by chi-square test

4.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우식예방 인지 및 태도

우식예방 효과 인지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 칫솔질 우식 예방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93.0%(174명), 비경험군 88.5%(46명)로 나타났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7.0%(13명), 비경험군 11.5%(6명)($p=0.209$)으로 나타났다. 치아홈메우기의 우식예방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94.7%(177명), 비경험군 92.3%(48명)로 나타났으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5.3%(10명), 비경험군 7.7%(4명)으로 나타났다($p=0.524$). 불소의 우식예방 효과를 인지한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은 95.2%(178명), 비경험군은 98.1%(51명)로 나타났으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4.8%(9명), 비경험군 1.9%(1명)으로 나타났다($p=0.357$). 우식예방 태도에서 회전법으로 칫솔질을 하고 있는 경우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15.0%(28명), 비경험군 17.3%(9명)로 나타났으며, 회전법으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85.0%(159명), 비경험군 82.7%(43명)으로 나타났다($p=0.681$)<Table 4>.

Table 4. Awareness of and compliance towards caries prevention by preliminary oral health education

Unit : N(%)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p-value*
	Yes(n=187)	No(n=52)	
Recognition			
Purpose of tooth brushing			
Aware	174(93.0)	46(88.5)	0.209
Unaware	13(7.0)	6(11.5)	
Sealant effect for caries prevention			
Aware	177(94.7)	48(92.3)	0.524
Unaware	10(5.3)	4(7.7)	
Fluoride effect for caries prevention			
Aware	178(95.2)	51(98.1)	0.357
Unaware	9(4.8)	1(1.9)	
Compliance			
Tooth brushing methods			
Rolling tooth brushing	28(15.0)	9(17.3)	0.681
Other methods	159(85.0)	43(82.7)	

*by chi-square test

5. 구강보건교육 경험자의 구강보건교육 장소와 내용

구강보건교육 경험자의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장소는 치과 병원 59.4%(111명)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 내용은 칫솔질 교습 74.3%(1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5. Place and contents of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education received	N(%)
Place of education	
Dental clinic	111(59.4)
Public health center	8(4.3)
School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68(36.4)
Contents of education	
Tooth brushing method	139(74.3)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method	18(9.6)
Oral health preventive	30(16.0)

총괄 및 고안

현대사회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모든 생활지도와 수업의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함께 하게 되므로 아동의 행동과 특성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적 지식과 행동 또한 아동들의 구강관리습관 형성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¹⁴⁾.

Flanders¹⁵⁾는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아동들의 구강관리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enny¹⁶⁾와 Boyer¹⁷⁾는 학생들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구강보건교육은 학교당국과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보건행태 및 구강보건교육 관련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교사들의 구강건강지식 및 태도 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재직기간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서 교육경력에 높을수록 교육경험이 높게 나타나 최¹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구강보건교육을 접할 기회가 좀 더 많아져 나타난 결과로 여겨지며 추후 연구에서 교육경력별 구강건강에 대한 행태 지도능력에 관한 구체화된 설문이 개발되어 조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행태에서 구강관리용품 사용자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60.4%로 나타나($p<0.001$) 이는 최⁵⁾의 연구에서 구강관리용품 사용이 71% 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김¹⁸⁾과 남⁹⁾의 연구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은 교사들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구강보건교육 시 구강관리용품 사용법과 효

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교육 기회가 있다면 받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경험군 50.0%, 비경험군 53.8%로 장과 성²⁰⁾의 연구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구강보건지식 뿐 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학교현장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식예방 태도에서 회전법으로 칫솔질 하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15.0%, 비경험군 17.3%로 나타나 두 경험군 모두 다 올바른 칫솔질 실천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과 성²⁰⁾의 연구결과에서 회전법으로 칫솔질 하는 구강보건교육 경험자 35.4%, 구강보건교육 비경험자 20.8%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11, 21, 22)}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가 아동들의 교육적 행동에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동기유발이 필요함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의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위해서는 칫솔질 교습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 행동유지를 위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장소는 치과 병원 59.4%로 나타나 장과 성²⁰⁾의 연구에서 교육 경로는 보건소가 69.7%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 받은 장소로 치과 병원이 가장 많았던 것은 교육의 대부분이 치과치료를 위해 방문 했을 때 받은 개인 대상 칫솔질교습인 점을 고려해 보면 교사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추측되므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보수교육 시 구강보건 전문가의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관리용품 및 구강병 예방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자 중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내용은 칫솔질 교습 74.3%, 구강병 예방법 16.0%,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9.6% 순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올바른 칫솔질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천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구강건강관리 실천과 학생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방법과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이 일부지역 담임교사에 국한되어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담임교사들의 구강보건관리 및 지도 능력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담

임교사들의 행태에 대해 조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교육의 장에서 교과과정과 연계한 구강보건교육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구강보건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구강보건교육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론

본 연구는 담임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행위가 아동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를 파악하고 구강보건교육 관련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교사들의 구강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2013년 5월 7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6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 239명 중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78.2%(187명), 비경험군 21.8%(52명)으로 나타났고,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행위에서 일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3.42회, 비경험군 3.27회로 경험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강관리용품 사용자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60.4%(113명), 비경험군에서 32.7%(17명)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2. 구강보건교육 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시간이 되면 받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50.0%(93명), 비경험군 53.8%(28명)로 나타났고, 구강보건교육을 꼭 받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경험군 33.9%(63명), 비경험군 32.7%(17명)로 나타났다($p=0.869$). 향후 받고 싶은 구강보건교육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구강질환 예방법 55.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경험군에서도 구강질환 예방법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308$).
3. 구강보건교육 경험자의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장소는 치과 병원 59.4%(111명)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 내용은 칫솔질 교습 74.3%(1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References

1. Kang SH.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expectations in the role of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amo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J Elementary Edus Stu* 2010;17(2): 1-25.
2. Chon JE, Choi YH.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dental health care in the teacher of local children center.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4): 827-37.
3. Kim YN, Song YS, Kim YS. Effects of mother's oral health care behaviors on dental caries in primary school children.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1): 145-56.
4. Kim JB, Choi YJ. *Public oral health*. 5th ed. Seoul: Komoonsa; 2011: 431-69.
5. Choi SS, Kim JD, Ryu HG. A study of subjective oral health condition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Daegu area.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9; 9(3): 248-61.
6. Hwang YS, Kim KM, Lim MH. Survey on tooth brushing practi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teacher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3): 465-73. <http://dx.doi.org/10.13065/jksdh.2013.13.3.465>.
7. Moon SJ, Kim NS, Ha HY, Han YJ. A study on a survey of recognition level of oral health in elementary-school teachers in Jinhae city. *J Korean Soc Health Edu* 2010; 10(2): 283-95.
8. Song KB, Kim DH, Shin YL.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Daegu and Kyung-pook province. *J Kyungpook Dent* 1993; 10(1): 33-45.
9. Yoon KK, C GL, Kim CY.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pusan.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0; 14(2): 211-220.
10. Ryu K, Jeong SH, Kim JY, Choi YH, Song KB. Effect of mothers' oral health behaviour and knowledge on dental caries in their pre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4; 28(1): 105-15.
11. Jung EK, Lee GR. Views about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dental hygien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6; 6(2): 165-74.
12. Choi YH, Suh I, Kwen HK, Ji SH. Children's dental health status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s.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9; 23(1): 45-62.
13. Lee JO, Moon HS, Kim JB, Paik DI. Knowledge and attitude of students parents on school-based incremental dental care in middle size of urban community.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2; 26(4): 495-510.
14. Choi MH. A study on awareness of oral health and oral health educ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3): 457-64. <http://dx.doi.org/10.13065/jksdh.2013.13.3.457>.
15. Flanders RA. Effectiveness of dental health educational programs in schools. *J Am Dent Assoc* 1987; 114(2): 239-42.
16. Kenney JB.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schools in affecting dental health status a potential yet unrealized. *J Public Health Dent* 1979; 39(4): 262-7.
17. Boyer EM. Classroom teacher's perceived role in dental health education. *J Public Health Dent* 1976; 36(4): 237-43.
18. Kim ME. A study on usage status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in service workers behavior.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8; 8(3): 37-52.
19. Nam SM. A study on the practic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and oral health status of patients in 'S' university dental clinic.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3): 373-81.
20. Jang KA, Seong MK. Subjective oral health behaviors and recognition of childcare teacher with and without oral health education. *J Dent Hyg Sci* 2009; 9(3): 319-26.
21. Chway GL.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Seoul. *J Korean Soc Health Edu* 1990; 7(1): 39-46.
22. Yoon SJ, Shin SC. A study on appraisal for school based fluoride mouth rinsing programme.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1; 15(1): 149-62.

